

장하나·박민지·안나린…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우승 3파전

등록 2020.11.07 20:28:41



[서울=뉴스시스]김명원 기자 = 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오션코스에서 진행된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 원) 3라운드 경기에서 장하나가 4번홀 버디 퍼트 성공후 주먹 불끈 쥐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대회본부 제공) 2020.11.07. phot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권혁진 기자 =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우승상금 3억원) 우승 경쟁이 장하나, 박민지, 안나린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장 하나는 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파72·647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 3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쳤다.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맞이한 장 하나는 이날 1타를 잃어 박민지, 안나린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지난 주 넷웍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을 정복한 장 하나는 대회 2연패와 2주 연속 우승을 동시에 노린다.

장 하나는 버디 2개를 잡았지만 보기 3개로 흔들렸다. 장 하나가 이번 대회에서 70대 타수를 적어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장 하나는 "플레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니 근육이 굳는 것을 느꼈다. 힘든 하루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마지막 최종라운드를 위해 에너지를 아껴뒀다. 내일이 기대된다"면서 2연패 의지를 불태웠다.

박민지와 안나린은 각각 이븐파와 1언더파로 장 하나와 균형을 맞췄다.

안송이는 선두 그룹에 3타 뒤진 단독 3위에 자리해 최종일 역전 우승을 바라본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이날 1오버파를 쳐 중간합계 이븐파 216타 공동 13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고진영에게 1타 뒤진 공동 15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우승상금 3억원) 우승 경쟁이 장하나, 박민지, 안나린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장하나는 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파72·647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 3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쳤다.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맞이한 장하나는 이날 1타를 잃어 박민지, 안나린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지난 주 네트워크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을 정복한 장하나는 대회 2연패와 2주 연속 우승을 동시에 노린다.

장하나는 버디 2개를 잡았지만 보기 3개로 흔들렸다. 장하나가 이번 대회에서 70대 타수를 적어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장하나는 "플레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니 근육이 굳는 것을 느꼈다. 힘든 하루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마지막 최종라운드를 위해 에너지를 아껴뒀다. 내일이 기대된다"면서 2연패 의지를 불태웠다.

박민지와 안나린은 각각 이븐파와 1언더파로 장하나와 균형을 맞췄다.

안송이는 선두 그룹에 3타 뒤진 단독 3위에 자리해 최종일 역전 우승을 바라본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이날 1오버파를 쳐 중간합계 이븐파 216타 공동 13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고진영에게 1타 뒤진 공동 15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